‘친환경’ 무더기 취소는 부실인증 남발 때문

전국 농산물 인증취소 2만7556건 중 전남이 무려 73%

주승용 의원 “인증면적 무리한 확대·인증기관 영리추구”

전남 지역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 건수가 해마다 수천 건에 달하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기관의 무리한 정책추진과 부실인증 남발이 이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안전행정위원회)은 2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리한 친환경농업 확대정책 추진과 자재업체 및 인증기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부실인증이 문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농관원의 최근 5년간 전국 친환경 농산물 인증 취소 현황에 따르면 총 2만7556건으로 이 가운데 전남이 2만192건으로 무려 73%에 달했다. 특히 전남은 올 상반기에만 2611건이 인증 취소돼 전국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2009년 1143건, 2010년 2113건, 2011년 5805건, 2012년 4371건, 2013년 4149건이었다. 인증 취소 농가는 친환경 농자재에 농약을 섞어 뿌리거나 모내기하기 전 논에 제초제와 화학비료를 미리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이처럼 전남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무더기 인증취소 사태는 전남도가 인증면적을 무리하게 확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국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는 지난 2013년 기준 총 12만6752 가구로 면적은 14만1651ha다. 이 가운데 전남은 인증 농가 5만8383호(46.1%), 면적 7만161ha(49.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북, 경남, 충남의 순이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남발하면서 상대적으로 인증 취소 사태도 끊이지 않았던 셈이다.

농관원은 “전남도가 무리한 친환경 농업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인증수수료와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를 과다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농관원은 또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자재업체와 인증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가 부족한 일부 농업인을 끌어들여 부실 인증을 남발한 것이 이 사태의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주승용 의원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전남은 친환경농업의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무더기 인증 취소가 발생하면서 전남의 친환경농업 전체까지 큰 불신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무리한 친환경농업 확대정책 추진과 자재업체와 인증기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부실인증 남발로 밝혀진 만큼 농업인들의 자율 실천의지로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내실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39.27 (-14.55)
- ▼ 금리 2.35% (-0.02)
- ▼ 코스닥 577.35 (-4.03)
- ▼ 환율 1040.70원 (-3.90)

지방대생 62% “취업후 지방 근무하고 싶다”

전경련·노동부 조사

희망 연봉 3600만원

지방대 학생들은 서울, 수도권보다는 자신의 고향이나 출신대학이 있는 곳에 근무하면서 연봉 3600만원 정도를 주는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고용노동부는 2~4일 ‘2014 지역인재 채용설명회’에 참석한 4개 지방대의 취업준비생 11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이 바라는 초임 연봉은 남자 3811만원, 여자 3412만원 등 평균 3618만원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일반대학생들이 희망하는 초임 연봉이 2500만~3500만원 수준이라는 기존의 조사결과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이들 지방대학생은 취업 희망 기업으로 66.7%가 대기업을 꼽았고 이어 공사 등 공기업 18.5%, 중견기업 11.9%, 외국계기업 9.3%, 금융기관 6.2%, 중소기업 2.2% 순이었다. 남녀 모두 대기업을 가장 선호했으나 남학생(72.5%)이 여학생(60.5%)보다 대기업 선호도가 높았다. 이들 지방대생의 희망 근무지는 지방(61.5%)이 서울 등 수도권(38.5%)보다 훨씬 많았다. 남학생(67.3%)이 여학생(55.3%)보다 지방에 근무하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방에서 근무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부산대(65.4%), 충남대(60.0%), 전남대(59.4%), 경북대(58.5%)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근무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40.9%가 ‘수도권의 주거비,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서’라는 답을 들었다.

지방대생들이 생각하는 올해 취업 시장 상황은 작년보다 어렵거나(41.5%), 작년과 비슷했다(32%). ‘작년보다 좋다’는 답변은 4.6%뿐이었다.

이들 취업준비생들은 하반기 취직을 위해 평균 26장의 입사지원서를 쓸 예정이다. 남학생은 24.6장, 여학생은 28.5장이고, 재학생은 25.5장, 졸업생은 30.9장으로 남학생과 졸업생들이 보다 절박한 심정을 보여줬다. /연합뉴스

기아차 신규 브랜드 캠페인

‘RE:Design’ 전개

기아자동차가 신규 브랜드 캠페인 테마로 ‘RE : Design(리 : 디자인)’을 정하고,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나선다. 〈사진〉

기아차는 22일부터 우리나라와 중국, 독일 등 전세계 주요 국가에서 신규 테마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의 로드 트립(Father & Son’s Road Trip)’을 핵심 소재로 다양한 이야기를 펼친다.

새 캠페인의 주제인 ‘RE : Design(리 : 디자인)’은 자동차는 물론 고객의 삶과 문화를 새롭게 그려나가겠다는 기아차의 의지를 담고 있다.

우수한 디자인과 품질을 갖춘 기아차의 제품들이 훌륭한 교통수단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고객들의 삶에 특별한 가치를 제공하는 조연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기아차는 설명했다.

이날 웹사이트 및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RE : Design’ 영상은 ‘RE : Design’의 콘셉트와 핵심 내용에 대한 소개를 담고 있으며 일상에서 대화도 적고 서먹한 ‘면’ 사이인 아빠와 아들이 자동차 여행을 함께하고 서로에게 가장 친근한 ‘옆’이 된다’는 내용을 통해 기아차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가을 멋쟁이는 모자를 쓴다

22일 백화점을 찾은 남성고객들이 가을 멋쟁이의 필수 아이템인 모자를 고르고 있다. 펠트나 모직 등의 소재로 제작된 베레모, 페도라(중절모) 등은 다양한 패션 스타일에 맞춰 골라 쓰기에 좋아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닭고기값 폭락… 5년만에 4000원대로

공급과잉 원인… 비축량 증가

닭고기 소매가격이 최근 5년래 처음으로 5000원 밑으로 떨어졌다.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9월 현재 닭고기 1㎏당(중품) 평균 소매가격은 4985원으로 올 1월 5610원 대비 11.1%나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10년 11월(5080원) 이후 가장 낮은 값으로 닭고기값이 7000원 가까이 치솟았던 2011년 3~4월보다는 30% 가까이 급락한 것이다.

닭고기 가격이 약세인 것인 공급 과잉 때문이다. 양계 농가들은 올초 여름철 보양식과 월드컵 특수 등을 예상해 병아리 입식을 대거 늘렸다. 이에 따라 올 2분기 광주·전남 육계 사육수는 전분기 보다 30% 증가한 2124만 마리를 넘어섰다.

하지만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의 성적 부진, 역대 최장기간 AI(조류인플루엔자) 등 여파로 닭고기 소비가 시들해지면서 냉동 비축 물량은 전년 대비 136.5% 증가한 1000만마리를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는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 농가를 돕기 위해 대대적인 닭고기 소비 촉진행사에 나선다.

롯데마트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닭고기를 시세보다 30% 가량 싼 가격에 내놨으며, 백숙용과 볶음용으로 조리할 수 있는 토종닭(1㎏이상/1마리)은 시세 대비 반값 수준인 5500원에 판매한다. 또 닭고기 생산업체인 하림과 사전기획을 통해 준비한 총 8만마리, 80t 물량을 연중 최저가로 선보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각화동 휴먼파크 서희 스타힐스 1050가구 착공

광주 최초 35층 초고층

아파트·오피스텔 혼합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인 각화동 휴먼파크 서희 스타힐스가 최근 조합원 모집을 마치고 착공식을 가졌다. 광주시 북구 각화동 383-1번지에 들어서는 이 아파트는 조합원모집을 완료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혼합한 ‘아파텔’로 지어진다. 〈투시도〉

지하 1~4층, 지상 35층 8개동 규모이며 구성돼 광주지역 최초로 35층 초고층 아파트로 공급된다. 단지는 전용면적 74㎡(옛 32평) 344가구와 84㎡(옛 34평형) 584가구, 84㎡ 오피스텔 104호 등 1050가구로 구성된다. 또 정남향과 남동향 등 혼합형으로 조성되며 내부는 전 가구가 방 4개의 4베이로 설계됐다.

각화동 휴먼파크 서희스타힐스는 무등산과 가까워 아파트단지와 연계된 등산로와 산책로가 조성됐다. 특히 제1·2순환도로 인근에 자리 잡아 도심 및 외곽의 접근성이 탁월하고 호남고속도로도 1분 거리에 근접해 담양과 곡성, 순천, 여수 지역으로 이동이 원활하다.

광주 최초로 35층 초고층으로 설계돼 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 2차 신규부지 공급도 예정돼 있어 향후 2000가구가 넘는 광주 동북부권의 뉴타운이 조성될 수도 있다. 최근 10년여 동안 인근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었던 탓에 주민들의 반응도 큰 편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경매투자
▶특수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단, 상담후 본사 결정
▶단독, 공동투자 하실 분
▶낙찰물건에 투자 하실 분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경매 투자자 모심
· 1억~10억원
· 담보 제공 가능
· 경매에 관심 있는 분!

아파트형 콘도/별장/펜션 분양
주인 직매, 010-3180-8900
★ 전남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53번지
광주에서 1시간 10분 거리

★ 아파트 개념
전기/수도 개별, 노래방/식당/세미나실 사용 가능
100m 온천수, 편백나무 시공
TV등 빌트인 시설 별도
★ 산속의 궁전
화개장터, 쌍계사, 노고단 근접거리
★ 총 55세대 (18/28/56평) 중 2세대
28평 – 8400만원(융자 2300만원 포함)
56평 – 1억6800만원(융자 4600만원 포함)

오피스텔 ″매매″
■ 29평 – 12층,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양동 하천 방향, 원룸형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올수리, 주거용
매매가 – 7200만원
■ 53평 – 13층,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창가, 코너, 전망좋음, 룸 2개 사무실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적합
매매가 – 1억5천500만원
■ 77평 – 20층,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창가, 코너, 전망좋음, 최상층
사무실 용도로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매매가 – 2억5천500만원
주인직매, 010-3605-5000